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 윤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인초기 미혼남녀의 유기불안과
연애관계 만족도의 관계
: 자아분화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조 은 애

성인초기 미혼남녀의 유기불안과
연애관계 만족도의 관계
: 자아분화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이정윤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조 은 애

인 준 서

조은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1월

심사위원장(인)

심사위원(인)

심사위원(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감사의 글

반년동안 상담소에서 실습을 하며 관심을 갖게 된 주제에 대해 부족하지만 무사히 논문을 쓰게 되어 기쁩니다. 먼저, 부족한 제자의 연구를 묵묵히 지지 해주신 이정운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셔서 이렇게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2년 동안 학업에만 매진하며 부족함도 깨닫고, 진정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과외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김정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인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김명선 교수님, 박혜경 교수님의 세심한 논문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심리학과 교수님들께 받은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상담자가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막내 손녀딸을 언제나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2년 동안 바로 옆에서 온갖 짜증과 감정기복을 견뎌준 우리 아빠, 엄마.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표현은 서툴러도 누구보다 응원해준 하나뿐인 우리 오빠, 고마워. 자랑스러운 딸, 동생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가족 사랑합니다 ♡

가장 오래 함께한 친구 소연이, 미란이. 날 항상 응원하고 믿어주는 민지. 만날 때마다 밥 사주며 응원해준 예지. 멀리 있어도 항상 힘이 되어주고, 응원해준 민주랑 희주언니. 그리고 수현이, 민지, 은경이, 현지, 다혜까지. 고마운 내 친구들. 모두 고맙고 사랑한다. 우리 행복하자.

대학원생활에 힘들 때마다 의지할 수 있었던 승현언니 고마워요. 한 걸음 앞서 가며 보살펴준 진영언니 고마워, 새로 시작하는 박사과정도 언니는 잘 할거야, 늘 응원할게. 대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따로 또 같이 함께했던 보라야 졸업 축하하고, 우리 꼭 잘 먹고 잘살자. 그 외에도 설문지 공유해주고, 흔쾌히 응해준 많은 친구들, 지인들께 감사드립니다.

힘든 대학원 생활 함께한 39기 고맙습니다. 신입생 환영회부터 졸업식까지 함께하며 든든하고, 고마운 예비 신부 재선이, 졸업과 결혼 축하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항상 밝은 기운을 전해주며 같이 울고 웃었던 보람아 고마워. 마지막으로 듬직하게, 은은하게 늘 곁에 있어준 우리 막내 혜정아 논문 쓰면서 건강 잘 챙기길 바란다. 몸도 마음도 고단한 대학원 생활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예쁜 동생들 모두 고맙고 사랑합니다. 어디에 있든 너희가 하는 일 모두 잘되길 바라고, 응원할게. 오래보자 우리.

대학원에서 만나 인연이 닿은 모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신입생 환영회 때부터 많이 알려주신 송유현 선생님. 논문을 시작하며 막막했을 때 길을 열어준 전수모아 선생님, 김지원 선생님. 선생님들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논문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들께 받은 도움 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신경써주신 이아람 선생님께도 감사합니다. 그 밖에도 성신여대 심리학과에서 만나 함께 공부했던 선생님들. 흔쾌히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오며가며 만나면 격려해주셨던 분들과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놓친 분이 있다면 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대를 함께한 성신여대를 기억하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조은애 드림

논문개요

본 연구는 유기불안과 연애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애경험이 1회 이상 있는 성인초기의 미혼남녀 440명을 대상으로 유기불안 척도, 자아분화 척도, 거부민감성 질문지, 연애관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애관계 만족도는 유기불안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또한 연애관계 만족도는 자아통합을 제외한 자아분화의 네 가지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거부민감성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둘째, 유기불안과 연애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아분화와 거부민감성이 완전 매개하여 유기불안이 연애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생애 초기에 형성된 관계경험이 자아분화와 같은 개인의 심리적 자주성과 개인이 가진 거부민감성과 같은 심리적, 인지적 변인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연애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연애관계 만족도, 유기불안, 자아분화, 거부민감성, 매개효과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5
1. 성인초기의 연애관계 만족도	5
2. 유기불안과 연애관계 만족도의 관계	6
1) 유기불안	6
2) 유기불안과 연애관계 만족도	8
3. 유기불안, 자아분화와 연애관계 만족도의 관계	10
1) 자아분화	10
2) 유기불안과 자아분화	14
3) 자아분화와 연애관계 만족도	15
4. 유기불안, 거부민감성과 연애관계 만족도의 관계	17
1) 거부민감성	17
2) 유기불안과 거부민감성	18
3) 거부민감성과 연애관계 만족도	19
III.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21
1. 연구모형	21
2. 연구문제	23
IV. 연구 방법	24

1. 연구절차 및 대상	24
2. 측정 도구	27
1) 유기불안 척도	27
2) 자아분화 척도	28
3) 거부민감성 척도	30
4) 연애관계 만족도 척도	30
3. 자료 분석	32
V. 연구 결과	34
1.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34
2. 주요변인들의 관계	35
3. 모형검증	37
1) 측정모형 검증	37
2) 구조모형 검증	39
3)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비교	41
4) 최종모형 검증	43
4. 매개효과 검증	44
VI. 논의	46
1. 결과에 대한 논의	46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제언	49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5
<표 2> 연구 대상자의 연애경험 특성	26
<표 3> 유기불안 척도의 문항구성	27
<표 4> 자아분화 척도의 문항구성	29
<표 5> 연애관계 만족도의 문항구성	31
<표 6>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34
<표 7> 주요 변인의 하위 변인들 간 상관관계	36
<표 8> 측정모형의 적합도	38
<표 9> 구조모형의 적합도	40
<표 10> 수정한 구조모형의 적합도	40
<표 11>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42
<표 12>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43
<표 13> 최종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45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22
[그림 2] 경쟁모형	22
[그림 3] 측정모형 검증	38
[그림 4] 구조모형	39
[그림 5] 수정한 구조모형	41
[그림 6] 최종모형 검증	4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성 관계는 전 세대에 걸친 중요한 심리사회적 요인이며, 특히 성인초기의 연애는 개인의 발달과업, 인간관계, 결혼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양수진, 이정운, 2012; 유외숙, 박경, 2004). Erickson(1963)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는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을 성인 초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성인초기에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자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때문에 이 시기의 연애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인한 이성과의 만남이 아닌 개인의 자아정체성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김진희, 2005). 만족스러운 이성 관계는 신체적 건강, 정서, 개인의 행복과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이수연, 2010), 결별은 불안, 우울 등 부적 감정을 가져온다. 이러한 정서적 문제는 생활 전반의 부적응을 일으키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최연화, 2012, 홍대식, 1998; Braithwaite, Delevi, & Finchman, 2010).

생애초기에 형성된 애착이 이러한 이성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강진경, 2000; 김광은, 이위갑, 2005; 김은지, 2016; Guerrero, Farinelli, & McEwan, 2009; Keelan, 1998, Waters, Weinfield, & Hamilton, 2000). 인간은 생애초기에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고, 이는 이후에 애착체계가 활성화될 때마다 관계를 해석하는 관점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권석만, 김지영, 2002). 따라서 생애초기에 부모와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생애초기에 양육자(주로 어머니)와 관계에서 버려지거나 대상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겪으며 자란 경우, 대상의 실재와 상관없이 유기불안을 경험한다(오남경, 2015). 버려지는 것에 대한 공포와 대상의 상실은 불안이나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한다(정연옥, 이민규, 김은정, 2007). 유기불안은 사랑의 대상을 상실하거나 대상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기인하고 내적 정서로 경험되며, 외적 행동으로 드러난다(오남경, 2015).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유기불안은 부모의 양육방식, 초기의 불안정한 애착, 대인관계에서의 반복되는 갈등과 관련되며(김진영, 2016; 오남경, 2015), 개인의 발달, 정서,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 배우자 선택과 관계 만족도, 대인관계 갈등 및 대처 방법 그리고 삶의 질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다(오남경, 2015).

성인초기에 개인은 잠재적 결혼 상대자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황여주, 2013),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내적 혹은 외적 압력에 의해 아동기의 감정양식과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정서적 반응에 의한 증상은 언제든지 표면화 되어 현실에 부적응하게 된다(이희백, 2013). 즉, 건강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버려지는 것과 관련된 단서가 있을 때, 유기불안을 재경험 하고 이것이 개인의 적응과 친밀한 관계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Freud는 대상의 사랑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많은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하며, 정신적 표상과 최초의 관계 패턴을 형성하는 데 있어 유아기의 정서적 경험이 유기불안과 관련된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Hamilton, 2007).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유기불안을 경험한 경우,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사람에 비해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정서적 자주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 가족체계이론에서

Bowen(1978)은 이를 ‘자아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제석봉, 1989, 재인용). 자아분화는 양육자와의 융합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자주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말하며, 이는 개인의 심리내적인 개념인 동시에 대인 관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정재완, 2016). 유기불안을 강하게 경험하는 경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려 하고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 관계중독과 같은 병리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며(이하람, 2016), 타인들과 쉽게 융합을 이루고 타인과 분리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친밀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보이고, 이성 관계와 결혼생활에서도 불만족을 보고하였다(석지은, 2008; 이설아, 2009). 반면, 버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적은 경우 관계에 있어 보다 자율성을 갖고, 억압되는 감정 없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강은숙, 박정희, 2005).

또한, 생애초기 관계에서 버려지거나 이에 대한 불안을 경험했던 개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거부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들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이들에 비해 거부에 대한 민감성이 뚜렷이 높고(이복동, 2000), 타인의 애매모호한 행동에도 거절감을 느끼고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다(김나영, 조유진, 2009; 이복동, 2000). 거부되는 상황은 개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관계를 회피하거나 사회적 관계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또한 이들은 대인관계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대감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와 함께 다양한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한다(김향선, 이영순, 2011;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생애초기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고 유기불안을 경험한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주적인 정체감이 결여되어 있고, 타인이 자신을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이렇게 내면화된 관계 구조는 개인의 성격을 형성하고, 반복되는 대인관계 갈등의 기저에 자리하게 된다. 낮은

자아분화 수준과 거부민감성은 성인초기의 개인이 만족스러운 연애관계를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내재화 과정을 촉진하는 불안이나 방어와 같은 정서적 경험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초기 미혼 남녀의 유기불안이 연애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분화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애관계 만족도와 부모애착(김은지, 2016, Feeney & Noller, 1990), 성인애착(김광은, 이위갑, 2005; 김명숙, 2008; 송슬기, 2013; 송은주, 이지연, 2016), 유기도식(이설아, 2009)등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들은 있으나, 유기불안과 연애관계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자아분화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된다면 연애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적 개입방법을 찾고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애관계와 관련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성인 내담자를 상담하는 경우, 배경탐색을 통해 자아분화 수준과 거부에 대한 취약성을 확인하고 개입할 수 있는 치료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성인초기의 연애편계 만족도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 Erickson은 초기 성인기(20~35세)에 이루어야 할 주요 발달과업으로 타인과의 친밀감 획득을 주장하였다. 이는 생애초기 부모와의 밀접한 관계가 성인초기에 처음으로 중요 타자와의 관계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부모와의 관계 이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존재인 연인과의 친밀감은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성관계란 넓은 의미에서 사회관계 및 대인관계의 한 유형으로, 사랑에 기초한 친밀한 이성과의 낭만적인 관계를 말한다. 연애란 어떠한 계약적 책임이 없는 미혼 남녀 간의 만남부터 결혼 전까지의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이정우, 김명자, 계선자, 1992). 남녀 간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성교제는 성인초기에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인초기에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 이성에 대한 흥미를 충족시키고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며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여 개인적 성장을 이루기도 한다. 또한 만족스러운 연애는 개인의 인격적 성숙을 돕는다.

반면, 역기능적인 연애는 고독감과 불안감을 갖게 하며(표승연, 2011) 친밀한 이성 관계를 맺지 못할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을 두려워하고 타인과 어울리는 것조차 피하게 된다. 이로 인해 관계에서 고립될 위험이 높고 적응상의 문제를 보이거나 우울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Lloyd & Cate, 1985). 또한 불만족스러운 연애는 일상에 긴장을 주고 공격성, 신체화, 분노, 좌절, 피로감 등을 포함한 스트레스 반응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arnes, et al., 2007).

성인초기의 연애편계는 결혼 후 생활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건강한 연애는 결혼 이후 만족도를 예견하고 이성 관계에서의 갈등 수준은 결혼 이후의 적응에 대한 지표가 된다(Cate, Levin, & Richmond, 2002). 개인으로 하여금 성인초기에 만족스러운 연애관계는 친밀감 형성에 긍정적이며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맺도록 한다. 연애관계에 있어 만족이란 관계에 대한 긍정적 감정 및 매력(홍대식, 1998)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족스러운 연애 경험은 성인초기의 발달과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결혼 후의 만족도와 적응, 행복을 예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초기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연애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유기불안과 연애관계 만족도의 관계

1) 유기불안

유기불안은 실제적인 대상의 부재와는 별개로 심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대상의 사랑을 상실하거나 대상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기인한 불안(오남경, 2015)이며, 개인의 내적 정서로 경험되고 태도로 드러난다. 유기불안은 정서적 특징인 유기감과 유기불안으로 인해 나타나는 태도적 특징인 대상관계 패턴 두 가지 ‘거절/거부하기’, ‘의존/매달리기’를 포함해 총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먼저 유기감은 유기불안으로 인해 관계에서 버려질 것 같은 느낌을 말하며, 이 때 개인은 우울, 분노, 공포, 죄의식, 수동성과 무기력, 공허감과 폐기감의 6가지 감정을 복합적으로 느끼고 경험한다(Masterson, 1972). 오남경(2015)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실제로 버려지지 않더라도 버림받거나 대상을 상실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한 부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유

기감이 높다고 보았다.

대상관계 패턴이란 성장과정 및 성인이 된 이후에 유기불안을 경험하거나 경험할 위기에 처할 때 보이는 방어로서 작동되는 대처방식을 뜻한다. 이러한 대처방식 중 의존/매달리기는 타인과 미분화된 관계 패턴으로 관계에서 버려진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고자 타인에게 매달리거나 의존하는 것이다. 매달리기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것은 자기주장을 삼가고 매달리면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리라는 환상이다(김미란, 2002). 자신을 바꾸고 노력하면 타인의 사랑을 얻고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놓지 못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방식이다.

반면 거절/거부하기는 타인과 가분화된 관계 패턴으로 관계에서 버려진다는 느낌을 받는 것을 미리 차단하여 안전감을 유지하고자 타인과 거리를 두고, 거절·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 자신을 포기해야 하고 결국 자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타인과 거리감을 유지함으로써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는 태도와 관련된다.

유기불안은 흔히 분리불안과 비교되거나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분리불안과 유기불안은 대상의 상실에 대한 불안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유기불안은 심리적 차원에서 독립의 부재, 즉 원시적 융합상태를 나타내는 것인 반면, 분리불안은 시각적 부재와 더욱 관련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유기불안은 분리불안보다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한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기불안은 부모의 양육방식, 초기의 불안정한 애착, 대인관계에서의 반복되는 갈등과 관련되며, 유기에 대한 불안 및 공포는 불안애착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 최근까지만 해도 유기불안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지 않아 이와 유사한 개념인 분리불안이나 유기도식을 중심으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다. 최근에 오남경과 이영순(2015)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기불안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함에 따라

유기불안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유기불안은 생애 초기에 유아에게 강한 정서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이러한 정서적 경험은 내재화되어 최초의 관계 패턴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유기불안은 생애초기에 분리개별화를 성공적으로 하지 못한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버려지는 것과 관련된 단서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기불안을 다시 경험하며 이로 인해 역기능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임종렬, 김순천, 2001). 유기불안이 발생하는 시기는 생애초기이나, 발달 시기별로 그 양상이 달라지고 성인이 된 이후의 관계 패턴까지 그 영향력이 지속된다.

2) 유기불안과 연애관계 만족도

개인은 발달과정에서 환경이나 중요한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체적인 성장과 더불어 심리적 발달을 경험한다. 자신의 가정을 꾸리기 전 까지 원가족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주요 대상의 자리를 새로운 대상으로 대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대상을 상실한 느낌이나 외로움, 고독감을 경험하며,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권석만, 김지영, 2002; 오남경, 이영순, 2015; Colarusso, 1992).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연애관계문제는 생애초기의 역동, 발달과업, 내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유기불안은 버림받거나 대상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영역에서 부각되는 특성이다. 이러한 유기불안은 대인관계를 해치는 문제 행동을 반복하게 하고(오남경, 이영순, 2015), 성숙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이하람, 2016). 생애초기에 형성되는 유기불안은 분리-개별화에 실패할 경우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다(임종렬, 김순천, 2001). 때문에 건강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이별과 같이 친밀한 대상을 상실하는 상황이나 유기 단서로 인해 유기불안을 재경험하고 관계 내에서 부적응적인 반응을 보인다.

여러 연구에서 청년기에 경험하는 관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유기불안이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Freud, 1926; Guntrip, 1969; Masterson, 1976). 또한 유기불안은 적대감, 분노(이지영, 손정락, 2009), 불안(Stopa, Thorne, Waters, & Preston, 2001) 등의 정서 또는 부적응적 방어기제와 관련되는 변인으로, 유기불안이 높을수록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았다(Godbout, Lussier, & Sabourin, 2006). 성인의 유기불안은 친구와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 유기불안을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중요한 타인과의 연결을 지속하려고 하며 통제하기 위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안길준, 김권곤, 2008). 또한 대상에게 매달리고 독립하지 못하며 버려지는 것에 걱정하며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유기불안을 강하게 느낄수록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경험하기 어렵고, 연애관계 뿐만 아니라 이후 결혼생활에서 만족 역시 낮게 나타났다(석지은, 2008; 이설아, 2009).

한편, 개인이 적응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유기불안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성인초기에 개인은 자신의 가족을 꾸리기 전까지 깊은 관계를 맺고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중요한 대상을 상실한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정직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의 수용에 근거한 사랑은 건강한 관계를 지속시키지만, 유기불안을 느끼는 이들의 삶은 허약한 자아로 인해 공허하고 공격에 취약하여 방어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유기불안이 대인관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이에 따라 연애관계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중요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발달과제인 성인초기에, 유기불안으로 인한 연애관계의 양상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성인의 애착이 친구나 애인, 배우자 등 친밀한 대상과의 경험을 통해 수정되거나 재조직화될 수 있다는 연구(장휘숙, 2000)에 따라, 만족스러운 이성관계는 생애초기에 형성된 불안정한 애착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성인초기의 연애관계에서 겪는 갈등의 기저에 있는 유기불안을 확인한다면 자신의 대상관계 패턴을 이해하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상담 장면에 적용하여 연애관계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을 탐색하고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유기불안, 자아분화와 연애관계 만족도의 관계

1) 자아분화

자아분화는 Bowen(1978)이 가족체계이론에서 제시한 핵심개념으로,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키는 능력 뿐 아니라 가족이나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관계훼손이나 정서적인 단절 없이 성숙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이중원, 2013; 황영훈, 박은영, 2003). 자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면 아동은 점차 어머니와의 정서적 융합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정서적으로 어머니와 분리된다. 자아분화는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키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숙과 가정으로부터 개성화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을 습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제석봉, 1989).

자아분화는 지적 기능(이성)이 정서적 기능(정서)으로부터 얼마나 잘 분화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는 정신내적 측면의 분화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

하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타인과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대인 관계적 측면의 분화로 나누어 설명된다. 정신내적인 측면에서의 자아분화는 사고와 정서가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성숙의 정도로 내적 혹은 외적인 압력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Bowen(1982)에 따르면 인간의 정서적 기능은 본능적인 경향으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경우 정서적 기능에서 지적 기능을 분리하지 못하고 융합시킨다. 때문에 객관적으로 환경을 지각하거나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반응하게 된다.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의 자아분화는 가족 혹은 이외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대인 관계적 측면의 자아분화가 잘 된 경우 진짜 자아(진아, Solid Self)를 발달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자신이 기대하는 바를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내는데, 진아(Solid Self)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변하지 않는다(김나루미, 2015). 반면, 가짜 자아(가아, Pseudo Self)는 타인이나 환경에 의해 자신의 목표를 쉽게 바꾼다(윤정연, 2001).

자아분화는 개인의 기능수준이나 인간적 성숙과 직결되는 개념으로(윤성민, 2014),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타인에게 쉽게 융합되어 자신과 타인을 분리시키기 어렵다. 때문에 주위사람들의 감정이나 반응에 민감하고 의존적이다.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심한 정서적 애착을 보이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감정에 의존하고 적응력과 융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쉽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Bowen, 1979). 반면, 자아분화를 이룬 사람은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진짜 자아를 발달시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취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한다. 이러한 개인은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으면서도 친밀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다.

자아분화는 정서인지분화, 자아 통합, 가족 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 퇴행으로 총 5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정서인지분화는 한 개인이 정서적 체계로부터 지적 체계가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경우 지적체계가 적절히 분화되지 않거나 발달하지 못해 정서적 체계의 지배를 받는다. 지적체계가 분화되거나 발달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과 감정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인지적 기능이 결여되어 자주적인 신념과 타인의 견해를 지지하지 못하며 자기 자신과 외부세계에 대한 지각 역시 자신의 충동 혹은 감정에 따라 좌우된다(김나루미, 2015). 이는 결과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을 방해한다. 반면 분화가 잘된 경우 정서적 체계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신념과 확신을 가진다(제석봉, 1989).

둘째, 자아통합은 자신이 가진 신념, 삶에 대한 목표 등이 대인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것을 말한다. 자아분화가 잘 되었다는 것은 진아(Solid Self)가 발달되었다는 것으로, 진아는 명확한 신념과 견해, 확신 및 생활원리로 구성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관계의 영향을 덜 받는다(제석봉, 1989). 또한 자주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타인이나 사회적 압력에 쉽게 동조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아(Pseudo Self)가 발달된 사람들은 사회적 압력에 잘 타협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경우 사회적 압력에 흔들리며 불안을 경험하고,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인에게 동조하며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

셋째, 가족투사 과정은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과 관련이 있다. 이는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과정으로 가정에서 스트레스 상황이나 갈등 관계를 바람직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부모의 문제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자녀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이서정, 2012). Bowen(1978)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의 투사과정을 겪으며 성장한 개인은 대인관계 정도와 사회생활 적응도가 낮고 자아분화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사의 정도가 심할수록 자녀는 현실에서 불안과 걱정 등 정서적 기능에도 손상을 받아(제석봉, 1989) 자신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의존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넷째, 정서적 단절은 부모와 자녀 간 정서적인 단절을 뜻하는 것으로 함께 살지만 부모를 멀리하거나 회피하며 부모와의 대화를 거부한다(이서정, 2012). 정서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다. 또한 물리적으로 부모와 멀리 떨어져 교류하지 않으며 정서적으로 단절하며, 멀리 달아나기도 한다. 정서적 단절은 부모와의 융합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부모와 감정적인 융합을 이룬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감정적인 단절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최종선, 2015). 이는 자아를 분화시키지 않은 채 정서적 거리만을 두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독립은 아니다. 융합이 심한 사람은 결혼 후에 새로운 가족과 다시 융합되어 원가족의 문제를 그대로 재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가족퇴행이란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가족 간 동질화의 경향이 심하여 스트레스 상황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퇴행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가족퇴행은 가정의 미분화 수준을 잘 반영해주며 가정의 퇴행적 상호작용은 가족 구성원 각자의 자아분화에도 손상을 입혀 지적 체계가 정서적 체계에서 분화되지 않도록 한다.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역기능적 행동이나 증상을 많이 보고하고 가족 투사가 심하며 정서적 단절을 많이 경험한다. 또한 가족퇴행이 심할 때에 특히 역기능 행동이 더 많이 유발된다(장은영, 2012).

자아분화는 개인의 성장 초기에 가족원과의 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발달하여 성장 후 그들의 생활과 가족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이

명옥, 하정희, 2007). 자아분화란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정서적 성숙과 자기가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성화된 정도로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요소이다(최지영, 최연실, 2010).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분화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아분화 수준은 직접적으로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본 심리 욕구 만족을 촉진시켜 삶에 대한 만족을 높였다(윤성민, 2016). 반면 낮은 자아분화수준은 대인관계에서 불안을 유발시킨다. 요약하면 자아분화수준은 개인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인가를 알려주며, 개인의 자주성과 목표 지향적 삶과 관련이 있다.

2) 유기불안과 자아분화

부모자녀 관계나 애착은 한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부모자녀 관계가 적절한 유대관계를 가질 때 자아분화 수준이 높고(백양희, 최외선, 1997) 부모애착과 자아분화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김갑숙, 전영숙, 이철우, 2009). 박영호(2006)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친밀감을 통한 자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양육태도는 적절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임을 밝혔다. 즉, 부모와 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자아분화수준이 높고, 이것은 이후에 안정된 성인애착을 예측한다.

양육자와 관계에서 유기감을 경험한 경우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개인에 비해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한다.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유기감을 경험했거나 버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공포를 가진 개인은 성장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버려질 것 같은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와 높은 수준의 애착을 형성한 대학생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분리-개별화를 이루었고, 자신의 삶에서 적응적이며 이성적 애착을 형성하였다(장휘숙, 2002).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고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유기불안을 경험하는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안정적으로 초기 관계가 형성된 경우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살아간다.

3) 자아분화와 연애관계 만족도

한국의 입시위주 교육풍토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때문에 개인은 성인기에 진입하게 되면서 인간관계 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탐색하게 된다(한정아, 심홍섭, 2005). 가족으로부터 벗어난 독립된 삶을 영위하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성 혹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보다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 시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 과제라 할 수 있다(이수일, 1998).

자아분화는 인간의 심리적 복지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적절성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데,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대인관계 역시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맺는 능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백경하, 200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분화가 낮은 경우에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설정하는 상황과 관계의 분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불안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강은숙, 박정희, 2005). Wilie(1991)는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의 경우

자신의 정체감을 잘 유지하고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거나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등 생의 모든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기 쉽다고 보았다. 반면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경우, 사회적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거나 친구관계를 포함한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보였다.

이렇듯 자아분화 수준은 성인애착과도 유의한 정적상관을 가지며 대인관계의 질을 예측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제석봉(2002)의 연구에서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간의 일치, 만족, 응집 및 애정표현이 높았고, 자아분화수준은 부부애정의 구성요소 중 결단/헌신 및 친밀과 높은 수준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McCreanor(1988)에 의하면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정서적 친밀감의 수준이 높았고, 낮은 사람들의 경우 결혼생활에서 스트레스와 갈등을 많이 보고하였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은 결혼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남진, 2005; 이신숙, 2000; 제석봉, 2002).

따라서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로 보아 자아분화 수준은 성인 초기에 경험하는 연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4. 유기불안, 거부민감성과 연애관계 만족도의 관계

1) 거부민감성

인간은 누구나 타인들로부터 수용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수용받기란 어려운 일이다.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거부당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거부하기도 한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거부를 받아들이는 태도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다. 거부민감성이란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불확실한 거부 단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으로 거부의 가능성이 있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촉발된다(Downey & Feldman, 1994).

거부민감성은 유년기에 부모나 중요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욕구에 대한 강하고 지속적인 거절경험이나 가정폭력, 정서적 유기, 혹독한 양육, 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발달한다(지은선, 2014). 거부민감성은 개인으로 하여금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거부에 대해 예민하게 지각하도록 하며, 애매모호한 대인 관계적 단서를 거절로 해석하도록 한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경우 거절에 대한 불안이 높고, 거부에 대해 더 많이 예상하거나 기대한다. 중립적인 상황에서도 타인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적대적으로 해석하고 행동한다(Dodge & Somberg, 1987). 때문에 이들은 일상에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런 경우 분노나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며 대인관계에서 침묵이나 적대적 행동, 갈등과 같은 부적절한 방어반응을 보인다. Downey와 동료들(1998)은 이러한 방어반응이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타인

의 부정적 반응을 이끌어 낸다고 하였다. 즉, 친밀한 관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거절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에 대한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며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위축되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대처하게 된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유기불안과 거부민감성

초기 애착관계와 부모로부터의 거부경험이 거부민감성을 초래한다(Downey & Feldman, 1996). 생애초기에 형성된 애착유형은 개인이 이후의 삶에서 대인관계를 맺을 때마다 사람에 대한 믿음과 대인관계에 대해 갖는 정서적 반응 및 만족감에 영향을 준다.

유기불안은 부모의 양육방식, 초기의 불안정한 애착, 대인관계에서의 반복되는 갈등과 관련되며, 유기에 대한 불안 및 공포는 불안애착과 유의한 상관관을 보인다. 유기불안은 생애 초기에 유아에게 강한 정서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이러한 정서적 경험은 내재화되어 최초의 관계 패턴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불안정한 애착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민감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게 하고, 대인관계에서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염려를 경험하게 한다.

애착관계에서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은 사회적 상황을 해석하고, 이에 반응하는 일종의 지도 역할을 한다. 초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거부적 양육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거부를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이복동, 2000). 이경숙 등(1999)이 모애착과 거부민감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경우 거부민감성의 불안, 분노, 믿음, 심리적 반응 모든 영역

에서 유의미하게 부적관계를 보였다. 주양육자의 거부를 반복적으로 경험했거나 심리적으로 유기감을 경험한 아동의 경우, 애매모호하거나 잠재적 거부상황에서 자신이 거부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더 많이 보고하였다. 부모와의 애착을 바탕으로 형성된 거부민감성은 이후의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에 중요한 예측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어린 시절 경험한 유기감이나 유기에 대한 불안·공포는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도 거부 받는 것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도록 하고 걱정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3) 거부민감성과 연애관계 만족도

거부민감성은 연애관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연애관계 만족도가 낮았을 뿐 아니라 상대연인의 관계만족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Downey & Feldman, 1996).

거절에 민감한 개인은 연애관계에서 상호작용을 더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해 관계의 질을 낮추는 행동을 보이고, 이는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자신과 상대연인의 불만족에도 영향을 끼친다(Downey, et al., 1998). 예를 들어 거부민감성이 높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상대 연인에게 공격적 행동(고함치기, 욕하기, 침뱉기 등)을 보였고, 거부민감성이 높은 남성 역시 상대연인을 더 많이 통제하거나 공격적 행동을 보였다(Downey, et al., 2004). 높은 거부민감성을 가진 남녀는 모두 유의하게 낮은 연애관계 만족도를 보였고, 파트너의 불만족을 과장하여 평가하는 등 상대연인이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을 축소하여 짐작하게 된다.

Hafen과 동료들(2014)은 중단연구를 통해 높은 거부민감성을 지닌 청소년

년의 6년 후 성인기 연애관계에서 불안, 회피, 부정적 상호작용을 보임을 밝혀냈다. 이는 한 개인의 삶에서 거부민감성의 패턴이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거부민감성은 양육과정에서 거절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적응적 반응이었으나, 민감성이 역기능적으로 작동될 때에는 성인기에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거부에 대해 예상하는 것이 연애관계에서 불만을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다(지은선, 2014).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고 더 많이 예상하는데, 이들은 거부의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적대적 혹은 공격적으로 반응하거나 사회적 철수를 시도한다.

요약하면,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에서 초래된 거부에 대한 불안이 중요한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성인기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 시기의 연애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Ⅲ.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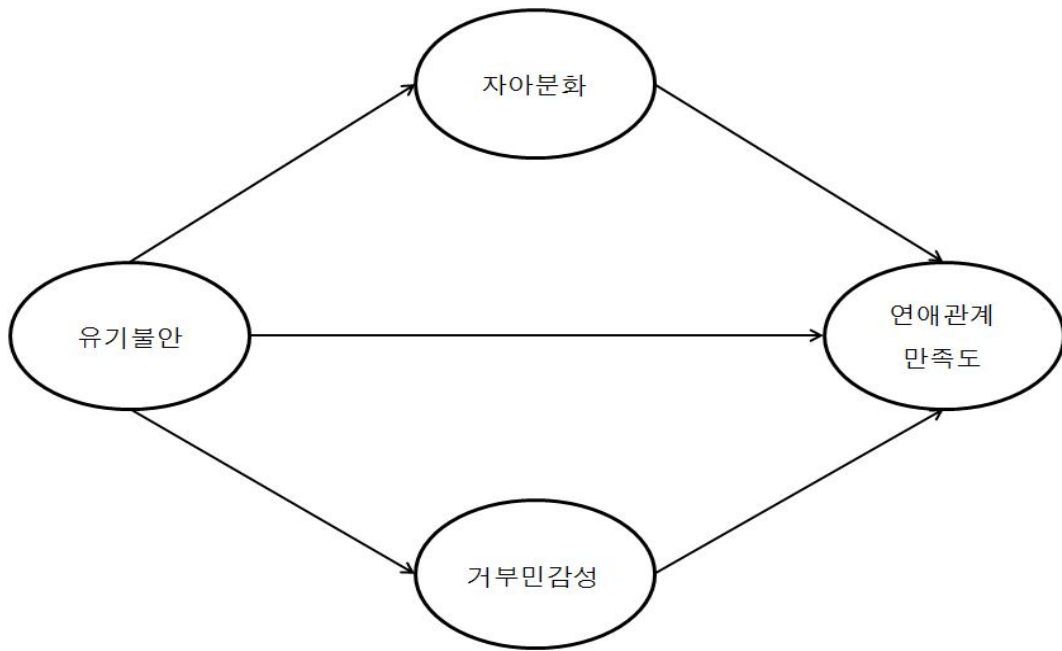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유기불안을 독립변인으로, 연애관계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자아분화와 거부민감성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각 경로를 설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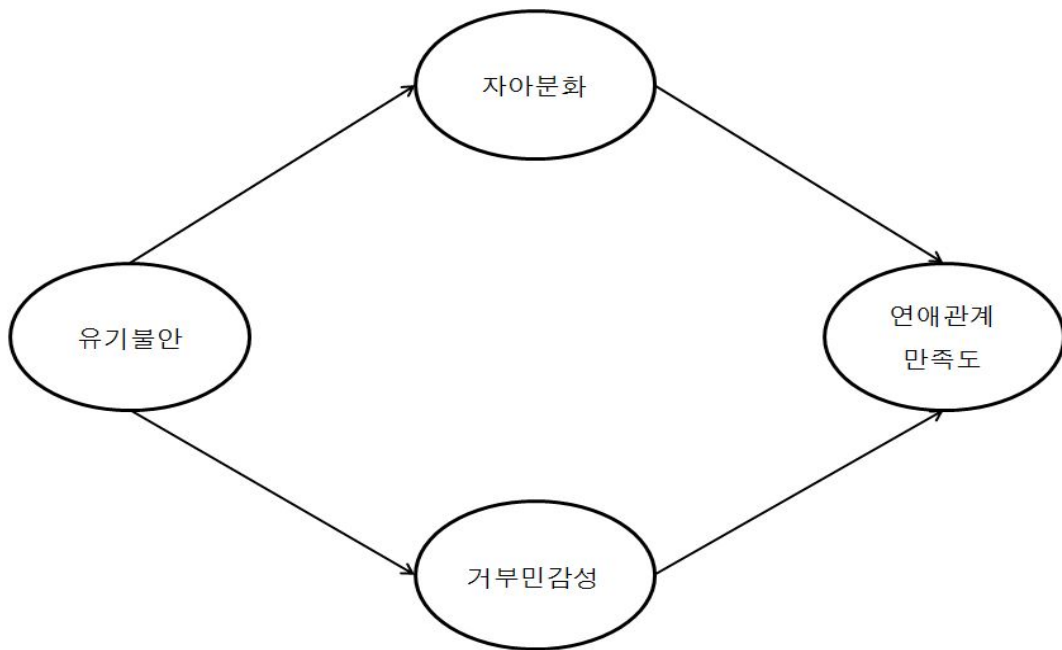
먼저, 선행연구들을 통해 유기불안과 유사한 개념인 분리불안, 불안정 애착, 유기도식 등이 연애나 결혼을 포함한 관계만족도에 직접 효과를 미치며, 이에 따라 유기불안이 연애관계 만족도로 가는 직접 경로를 설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유기불안이 자아분화에는 부적 영향을, 거부민감성에는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고 유기불안이 자아분화와 거부민감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아분화 및 거부민감성이 연애관계 만족도와 각각 정적, 부적의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자아분화와 거부민감성이 연애관계 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여 직접 경로를 설정하였다.

종합하면, 유기불안과 연애관계 만족도의 관계를 자아분화와 거부민감성이 부분적으로 매개할 것이라 보고, 이를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비교대상이 되는 경쟁모형은 자아분화와 거부민감성이 유기불안과 연애관계 만족도를 완전 매개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설정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경쟁모형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기불안, 자아분화, 거부민감성, 연애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1. 유기불안과 연애관계 만족도는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2. 유기불안과 자아분화는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3. 유기불안과 거부민감성은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4. 자아분화와 연애관계 만족도는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5. 거부민감성과 연애관계 만족도는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유기불안과 연애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가?

가설 2-1. 유기불안과 연애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IV. 연구 방법

1. 연구절차 및 대상

본 연구는 2016년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20-35세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의 특성상 연애행험이 한 번 이상 있는 사람만을 연구에 포함하였으며, 대상자를 임의로 표집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로 SNS를 중심으로 온라인 설문 링크를 배포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한 답례품으로는 700원 상당의 음료 기프트콘을 발송하였다. 모집결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 총 455명(온라인 388명, 오프라인 67명)이 참여하였고 문항의 일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무작위 응답을 하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와 연애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15명을 제외한 총 440명을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미혼남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총 440명으로 남자 186명(42.3%), 여자 254명(57.7%)이다. 연령은 만 19세부터 35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25-27세가 166명(37.7%)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연령은 26.3세(SD=3.22)로 20대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직업은 직장인이 236명(53.6%)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 85명(19.3%), 대학원생 58명(13.2%), 취업 준비생 39명(8.9%), 무직 및 기타 22명(5.9%)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40)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86	42.3
	여	254	57.7
연령	19-21세	31	7.0
	22-24세	91	20.7
	25-27세	166	37.7
	28-30세	118	26.9
	31-33세	26	6.0
	34-35세	8	1.9
직업	대학생	85	19.3
	대학원생	58	13.2
	취업 준비생	39	8.9
	직장인	236	53.6
	무직 및 기타	22	5.0

이성교제경험, 기간, 만남의 횟수가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곽소영, 2007; 박선미, 2003)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함께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애행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대상자 중 274명(62.3%)이 현재 연애중이라고 응답하였고, 현재 연애를 포함해 5회 이상 연애행이 있는 경우가 160명(3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성교제 기간을 살펴보면 6개월 미만 108(24.5%), 6개월-1년 미만 78명(17.7%), 1년-2년 미만이 88명(20.0%), 2년-3년 미만 71명(16.1%), 3년-4년 미만 37명(8.4%), 4년 이상이 58명(13.2%)로 나타났다. 가장 긴 연애행 기간에 대해서는 4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인원이 107명(24.3%)으로 가장 많았다. 연인과의 데이트 횟수는 주 1-3회 미만이 232명(52.8%)으로 가장 많았고 주3-5회 미만이 132명(30.1%), 주5-7회 미만이 43명(9.7%), 매일 17명(3.9%), 주 1회 미만

16명(3.6%)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연애행험 특성 (N=440)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현재 교제 여부	교제중	274	62.3
	교제중 아님	166	37.7
교제 횟수 (현재 교제 포함)	1회	60	13.6
	2회	69	15.7
	3회	68	15.5
	4회	83	18.9
	5회 이상	160	36.4
교제 기간	6개월 미만	108	24.5
	6개월 - 1년 미만	78	17.7
	1년 - 2년 미만	88	20.0
	2년 - 3년 미만	71	16.1
	3년 - 4년 미만	37	8.4
	4년 이상	58	13.2
가장 길었던 교제기간	6개월 미만	27	6.1
	6개월 - 1년 미만	47	10.7
	1년 - 2년 미만	94	21.4
	2년 - 3년 미만	106	24.1
	3년 - 4년 미만	59	13.4
	4년 이상	107	24.3
데이트 횟수	주 1회 미만	16	3.6
	주 1회 - 3회 미만	232	52.8
	주 3회 - 5회 미만	132	30.1
	주 5회 - 7회 미만	43	9.7
	매일	17	3.9

2. 측정 도구

1) 유기불안 척도

본 연구에서는 오남경과 이영순(2015)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유기불안 척도(Abandonment Anxiety Scale)를 사용하였다. 유기불안 척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버려질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 ‘유기감’ (10 문항), 유기불안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假)분화적 특성과 태도를 보이는 ‘거절/거부하기’ (9문항), 그리고 유기불안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미분화적 특성과 태도를 보이는 ‘의존/매달리기’ (8문항)를 포함하여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5점 Likert식 척도로,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기불안을 경험하는 정도가 강하다. 오남경과 이영순(2015)의 연구에서 전체척도의 Cronbach's α 는 .93이었으며, 하위요인은 유기감 .91, 거절/거부하기 .86, 의존/매달리기는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척도의 Cronbach's α 는 .94이었으며 유기감 .93, 거절/거부하기 .88, 의존/매달리기 .84로 나타났다.

<표 3> 유기불안 척도의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유기감	10	4,7,10,11,15,16,19,24,25,26	.93
거절/거부하기	9	2,3,8,9,13,14,17,20,27	.88
의존/매달리기	8	1,5,6,12,18,21,22,23	.84
전체	27	1~27	.94

2) 자아분화 척도

본 연구에서는 Bowen(1976)의 가족체계이론에 기초하여 체석봉(1989)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제작한 자아분화 척도(Self-Differentia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Bowen은 자아분화수준을 0부터 100까지 연속선으로 볼 때, 어느 개인이든지 이 연속선의 한 점에 있다고 보았다.

이 척도는 총 36개의 문항으로 5가지의 하위 척도로 구성된다. 각 하위 척도의 점수를 합산한 것이 전체 자아분화 수준을 나타낸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부정 문항들은 역채점하여 각 하위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잘 된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 중 첫째, ‘정서인지 분화’ (7문항)는 본능적 충동의 지배를 덜 받는 것과 관련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숙한 사고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아통합’ (6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은 관계체계 또는 타인이나 상황으로부터 정서적인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신념과 생활원리를 잘 견지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가족투사’ (6문항)는 부모의 미분화된 자아를 자녀에게 투사하여 부부문제를 대를 이어 전달하는 것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투사의 영향을 덜 받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정서적 단절’ (6문항)은 부모와 자녀간의 자아가 분화되지 않고 융합이 심할수록 자녀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단절되려는 경향이 높아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낮음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가족퇴행’ (11문항)은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더 많이 나타나며 본 하위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퇴행적 상호작용의 경향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이소미, 고영건, 2009).

자아분화 수준이 낮다는 것은 자아융합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변인들의 감정과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의존적임을 나타낸다. 이런

경우 긴장과 불안을 자주 경험하며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하다. 반면에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경우 안정적인 정서를 보이고 타인과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맺으면서도 독립적인 자아 정체감을 유지한다. 또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타인의 신념과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목적 지향적 삶을 살아간다(양수진, 2010).

측정도구 개발 당시 제석봉(1989)의 연구에서 자아분화 척도의 Cron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정서인지분화 .76, 자아통합 .74, 가족투사과정 .77, 정서적 단절 .78, 가족퇴행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척도의 Cronbach's α 는 .89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정서인지분화 .78, 자아통합 .65, 가족투사과정 .85, 정서적 단절 .80, 가족퇴행 .90으로 나타났다.

<표 4> 자아분화 척도의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정서인지 분화	7	1*,2*,3,4*,5*,6*,7*	.78
자아통합	6	8,9,10,11*,12*,13	.65
가족투사	6	14*,15*,16*,17*,18*,19*	.85
정서적 단절	6	20,21*,22*,23*,24*,25*	.80
가족퇴행	11	26,27,28,29,30,31,32,33*,34*,35*,36*	.90
전체	36	1~36	.89

*문항은 역채점 문항

3) 거부민감성 척도

미혼 성인 남녀의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거부민감성 설문지(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를 이복동(2000)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에서는 거부민감성에 대해 중요한 타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과 불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성인초기 일상생활에서 부모, 친구, 교수, 연인, 잠재적 연인, 잠재적 친구 등 중요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18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대해 6점 Likert척도 상에서 자신의 요구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과 불안한 정도(거부 불안), 자신의 요청이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여부(수용기대)를 각각 평정한다(김진선, 2009).

거부민감성 총 점수는 각각의 상황에 대한 거부불안 점수와 수용기대 점수의 역채점한 값을 곱한 점수의 총점을 전체 문항 수 18로 나눈 값이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3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Downey와 Feldman(1996)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83이었고, 이복동(2000)이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번안, 타당화한 연구에서는 .87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척도의 Cronbach's α 는 .93으로 나타났다.

4) 연애관계 만족도

Snyder(1979)가 개발한 결혼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 MSI)를 권정혜, 채규만(1999)이 한국 실정에 맞추어 예비검사를 실시한 후 표준화한 한국판 결혼만족도검사(Korea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 K-MSI)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MSI를 유소영(2000)이 미혼 남녀에게 적합한 표현으로 수정한 것을 이복동(2000)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상관이 낮은 문항을 제거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애관계 만족도 척도는 ‘전반적 불만족’ (16문항),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7문항),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12문항), ‘공유시간 갈등’ (6문항)의 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총 41문항이다. 전반적 불만족은 이별과 같은 이성관계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대하고 전반적인 관계에 불만족하는 정도를,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는 이성파트너의 애정, 지지, 정서적 친밀감, 정서적 이해와 공감의 정도를 말한다.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는 이성파트너와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 민감한 문제에 대해 의논하거나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는지의 여부를 포함한다. 공유시간 갈등은 연인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여가활동이 있는지,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를 포함한다. 원척도는 진위척도(그렇다/아니다)로 평가되나,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식 척도로 부정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한다.

이복동(2000)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반적 불만족 .90,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74,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85, 공유시간은 .7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척도의 Cronbach's α 는 .96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는 전반적 만족 .90, 정서적 의사소통 .85, 문제해결 의사소통 .88, 공유시간 갈등 .82로 나타났다.

<표 5> 연애관계 만족도의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전반적 만족	16	1,2,3*,6*,11*,12,16*,23*,25*,27*,29*,31*,32,35*,38*,40*	.90
정서적 의사소통	7	14,15,19*,21,24,34*,39	.85

문제해결 의사소통	12	4*,8*,10*,13*,20,22*,28*,30,33*,36*,37,41	.88
공유시간	6	5*,7,9*,17*,18*,26*	.82
전체	41	1~41	.96

*문항은 역채점 문항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0.0와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SPSS를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척도별 신뢰도 검증을 통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유기불안, 자아분화, 거부민감성, 연애관계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기불안이 연애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분화 수준과 거부민감성이 부분 매개하는 연구 모형으로, 완전 매개하는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검증하였다. 모수치 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를 사용하였다. 이 때 거부민감성을 4개의 문항꾸러미(Item-Parcel)로 나누어 측정변수를 만들었다. 1요인으로 나타

난 척도의 문항들을 요인 부하량에 따라 순서를 매긴 후, 각 문항묶음에 요인부하량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이 공평하게 들어가도록 할당하였다. 이렇게 문항꾸러미를 만드는 이유는 최대우도법 절차의 가정은 자료의 정규분포인데, 모든 문항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할 경우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Bandalos & Finney, 2001). 또한 문항꾸러미를 사용하여 모수 추정 수를 줄일 수 있으며, 자료의 비정규성 수준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된다(Bandalos & Finney, 2001).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Anderson & Gerbing(1988)의 2단계 추정방식에 따라서 먼저 측정모형을 검증한 뒤, 다음 단계에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본래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X^2 검증이 사용되나, X^2 검증의 경우 영가설의 내용이 엄격하여 연구모형이 쉽게 기각되며, 동일한 모형이라도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형을 평가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다른 적합도 지수와 함께 고려된다. 적합도 지수로 모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표본 크기에 적합도 지수가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자료에 잘 부합되면서 간명한 모형을 선호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of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를 사용하였다. CFI, TLI는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배병렬, 2011), RMSEA는 .05미만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Mediocre fit),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로 간주된다(홍세희, 2000).

넷째, 마지막으로 sobel-test를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V. 연구 결과

1.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전에 기초 자료로서 유기불안, 자아분화, 거부민감성, 연애관계 만족도의 평균, 표준편차, 최저점수와 최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측정 변인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Kline(2010)이 제안한 기준에 따르면 왜도의 절대값이 3 이상, 첨도의 절대값이 8 이상인 경우 정규성 가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가 기준 값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분포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표 6>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N=440)

변인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 최대값	왜도	첨도
유기불안	2.60 (.67)	1.00 - 4.85	.28	-.09
유기감	2.40 (.88)	1.00 - 5.00	.61	-.25
거절/거부하기	2.63 (.76)	1.00 - 5.00	.13	-.30
의존/매달리기	2.82 (.73)	1.00 - 4.75	.11	-.42
자아분화	2.91 (.35)	1.25 - 3.81	-.49	.71
정서인지 분화	2.93 (.48)	1.00 - 4.00	-.50	.82
자아통합	2.68 (.40)	1.00 - 4.00	-.04	1.01
가족투사	3.18 (.60)	1.00 - 4.00	-.59	-.02
정서적 단절	2.64 (.64)	1.00 - 4.00	-.41	-.18
가족퇴행	3.01 (.58)	1.00 - 4.00	-.49	.25
거부민감성	7.44 (3.63)	1.00 - 27.67	.92	2.19
연애관계 만족도	3.40 (.67)	1.24 - 5.00	-.01	-.43
진반적 만족	3.43 (.68)	1.13 - 5.00	-.05	-.33

정서적 의사소통	3.56 (.73)	1.00 - 5.00	-.19	-.32
문제해결 의사소통	3.25 (.69)	1.33 - 5.00	.21	-.39
공유시간	3.42 (.78)	1.33 - 5.00	-.22	-.55

2. 주요변인들의 관계

유기불안, 자아분화, 거부민감성, 연애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유기불안과 연애관계 만족도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r = -.44, p < .01$). 특히, 유기불안의 하위요인 중 유기감($r = -.47, p < .01$)은 연애관계 만족도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유기불안은 자아분화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r = -.49, p < .01$). 또한,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모두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r = -.26 \sim -.41, p < .01$).

셋째, 유기불안은 거부민감성과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 = .63, p < .01$). 거부민감성은 유기불안의 하위요인인 유기감($r = .55, p < .01$), 거절/거부하기($r = .54, p < .01$), 의존/매달리기($r = .49, p < .01$)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넷째, 자아분화와 연애관계 만족도는 정적상관을 보였다($r = .31, p < .01$). 자아통합을 제외한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모두 연애관계 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 = .10 \sim .32, p < .05$).

마지막으로 거부민감성은 연애관계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35, p < .01$). 특히, 연애관계 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전반적 만족은 거부민감성과 가장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다($r = -.36, p < .01$).

<표 7> 주요 변인의 하위 변인들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															
2	.89**	1														
3	.83**	.60**	1													
4	.78**	.55**	.50**	1												
5	-.49**	-.46**	-.39**	-.35**	1											
6	-.28**	-.37**	-.18**	-.09	.54**	1										
7	-.26**	-.18**	-.05	-.46**	.30**	.02	1									
8	-.27**	-.26**	-.19**	-.21**	.63**	.28**	.16**	1								
9	-.28**	-.27**	-.29**	-.13**	.70**	.19**	-.02	.32**	1							
10	-.41**	-.35**	-.39**	-.29**	.83**	.27**	.13**	.29**	.52**	1						
11	.63**	.55**	.54**	.49**	-.53**	-.27**	-.27**	-.32**	-.31**	-.45**	1					
12	-.44**	-.45**	-.35**	-.27**	.31**	.30**	.08	.19**	.15**	.24**	-.35**	1				
13	-.45**	-.46**	-.36**	-.28**	.32**	.28**	.07	.22**	.16**	.25**	-.36**	.97**	1			
14	-.37**	-.36**	-.31**	-.22**	.26**	.26**	.11*	.15**	.10*	.20**	-.30**	.93**	.86**	1		
15	-.39**	-.41**	-.31**	-.23**	.30**	.31**	.06	.19**	.15**	.22**	-.32**	.96**	.90**	.85**	1	
16	-.44**	-.44**	-.35**	-.28**	.27**	.26**	.08	.16**	.13**	.20**	-.32**	.92**	.87**	.84**	.84**	1

* $p < .05$, ** $p < .01$

주. 1.유기불안 2.유기감 3.거절/거부하기 4.의존/매달리기 5.자아분화 6.정서인지분화 7.자아통합 8.가족투사 9.정서적 단절 10.가족퇴행 11.거부민감성
12.연애관계 만족도 13.전반적 만족 14.정서적 의사소통 15.문제해결 의사소통 16.공유시간

3. 모형 검증

1) 측정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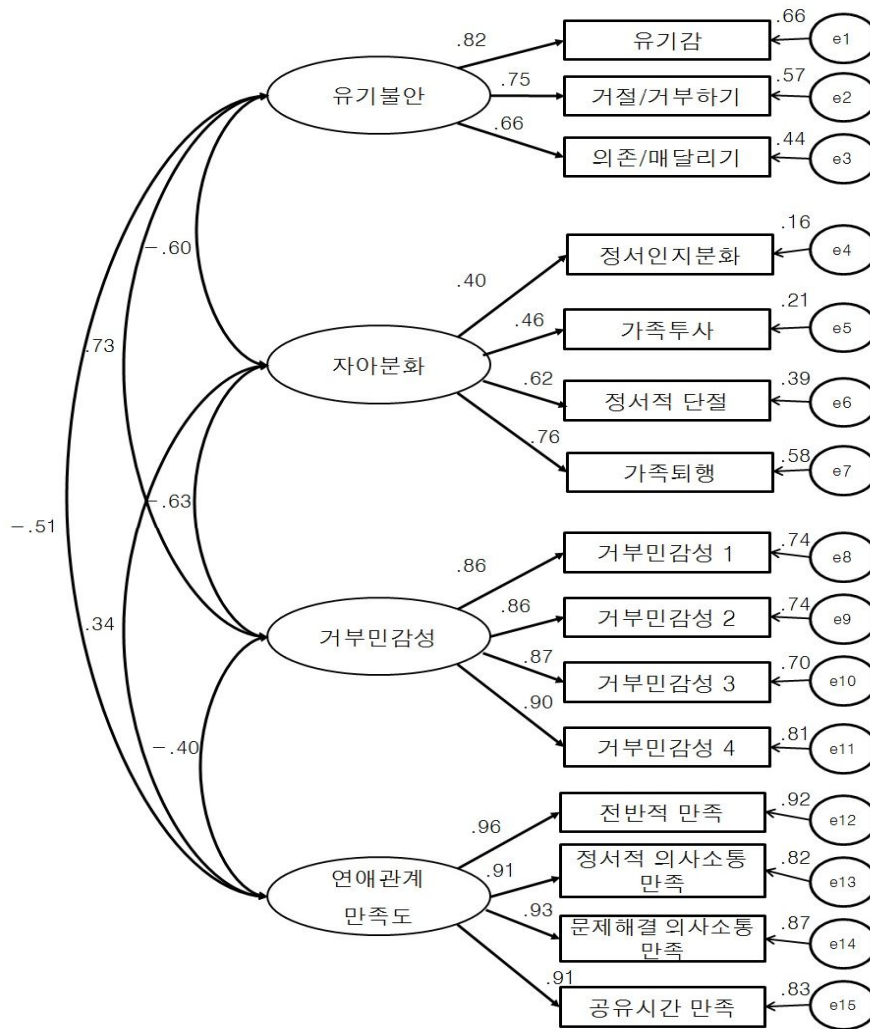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두 단계 검증방식에 따라 구조모형의 분석에 앞서 측정변수들이 각각의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개의 변인들을 개별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여, 요인 부하량이 .30 이하인 문항들을 제외시키고 재정비하였다. 그 결과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요인 부하량이 낮은 자아통합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하위요인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거부민감성의 경우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꾸러미 제작은 측정문항이 많을 경우 여러 개의 개별 측정 문항을 결합하여 꾸러미를 만들어 결합된 문항들의 합 또는 평균값을 사용함으로써 측정문항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다(조현철, 강석후, 2007). Russell 등(1998)의 제안에 따라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부하량 절대값 크기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부하량과 가장 낮은 부하량을 지닌 문항이 골고루 할당되도록 하여 모든 문항 꾸러미 들이 잠재변인에 대해 유사한 부하량을 갖도록 문항을 묶었다.

분석 결과는 <표 8>와 [그림 3]과 같다. 검증결과에 따르면 X^2 값이 312.233(df=84, $p<.001$), 절대적 적합도 지수를 의미하는 RMSEA가 .08, 상대적 적합도인 TLI와 CFI는 각각 .952로 .940로 나타났다. 모든 경로계수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4개의 잠재변인들이 각각의 측정변인들로 적합하게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측정모형의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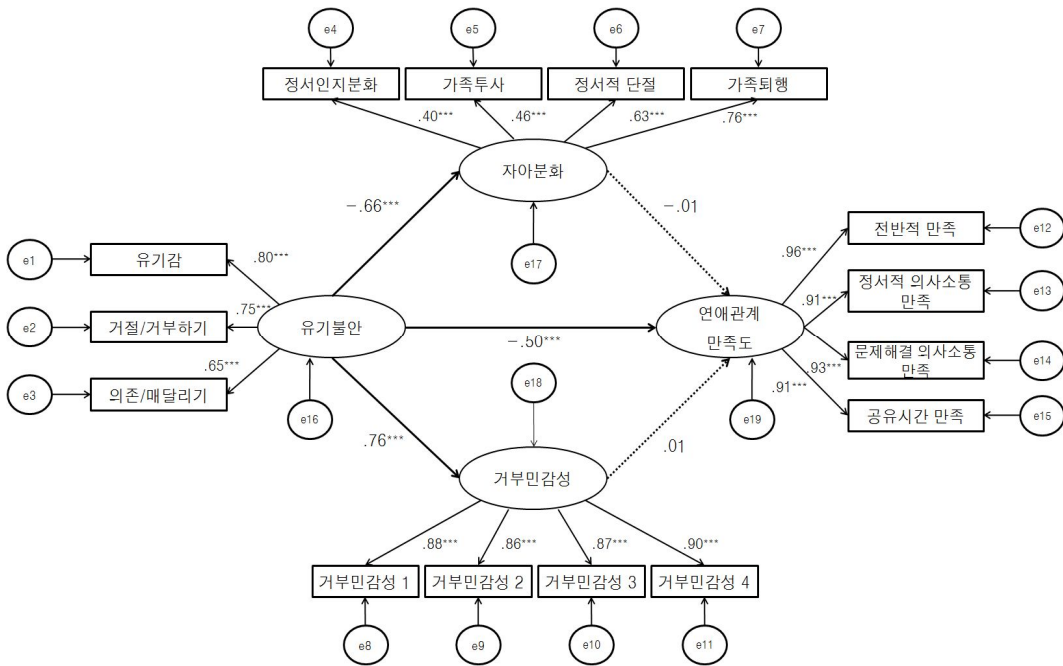
X^2	df	CFI	TLI	RMSEA
312.233	84	.952	.940	.079



[그림 3] 측정모형 검증

2) 구조모형 검증

앞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충족하고, 구조모형의 추정가능성을 이론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유기불안이 연애관계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동시에 자아분화와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연애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구조모형을 검증하고, 경로계수와 적합도 지수는 [그림 4]와 <표 9>에 제시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자아분화와 거부민감성에서 각각 연애관계 만족도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4] 구조모형

실선은 유의미함을,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

*** $p < .001$

〈표 9〉 구조모형의 적합도

X^2	df	CFI	TLI	RMSEA
332.854	85	.948	.935	.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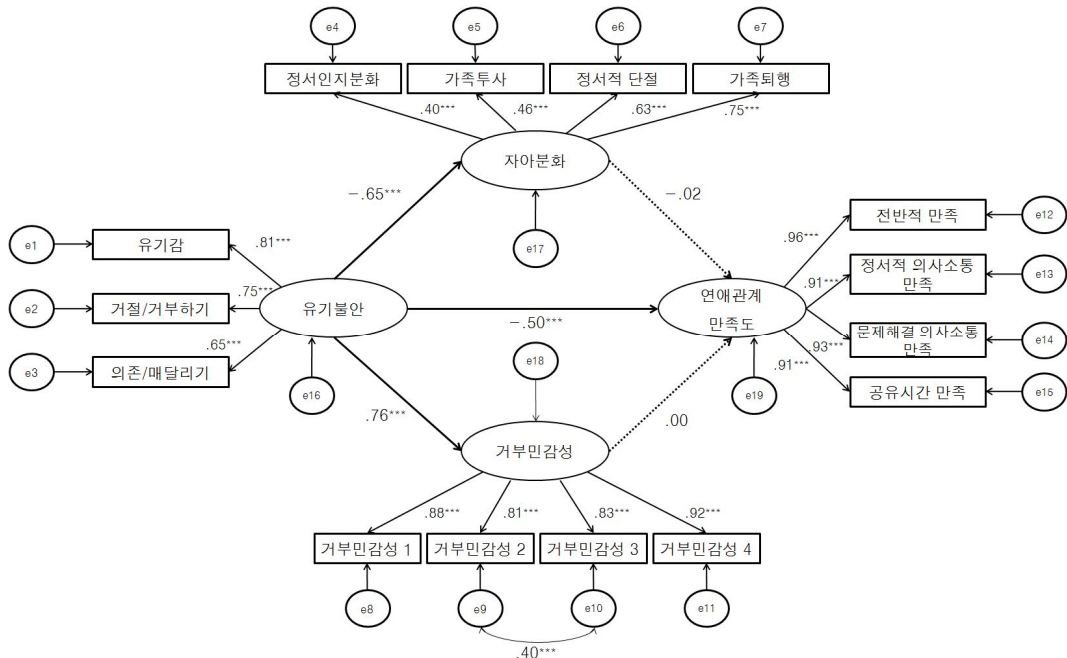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X^2=332.854(df=85, p<.001)$ 로 영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X^2 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변화하여 표본의 크기에 따라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진다. 때문에 구조방정식 모형을 평가하기 위해 X^2 의 값의 한계를 보완한 모델 적합도 지수 CFI, TLI, RMSEA를 함께 평가하였다(홍세희, 2000). 일반적으로 CFI와 TL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5~.08은 괜찮은 적합도, .08~.10일 경우 보통 수준의 적합도, .10이상일 경우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948, TLI=.974, RMSEA=.081로 나타났다.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참고하여 오차항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오차변량 e9와 e10의 상관관계를 추가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한 모형의 적합도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X^2=283.152(df=85, p<.001)$ 로 나타났고, CFI=.958, TLI=.947, RMSEA=.073으로 전반적으로 적합도가 상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아분화와 거부민감성에서 각각 연애관계 만족도로 가는 경로는 여전히 유의하지 않았다.

〈표 10〉 수정한 구조모형의 적합도

X^2	df	CFI	TLI	RMSEA
283.152	84	.958	.947	.073

3)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비교



[그림 5] 수정한 구조모형

실선은 유의미함을,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

*** $p < .001$

연구모형 검증을 통해 연구모형의 경로 중에서 자아분화에서 연애관계 만족도로 가는 경로와 거부민감성에서 연애관계 만족도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고, 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 또한 적절함을 확인하였다([그림 5]).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적합도를 보이는 모형을 선별하고자 경쟁모델 전략에 따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경쟁모델 전략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할 때, 대표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나 이론을 바탕으로 고안한 연구모델과 경쟁모델들을 함께 제시하여 모델들의 적합

도 지수를 비교하여 가장 해석이 용이하고 자료와 잘 맞는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는 것이다(배병렬, 2011). 본 연구에서 가정한 연구모형은 유기불안이 연애관계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동시에, 자아분화와 거부민감성에 의해 부분 매개되어 연애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 부분매개 모형이다. 연구모형과 비교 및 분석을 통해 더 적합한 모형을 결정하기 위해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고,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X^2	df	CFI	TLI	RMSEA
연구모형 (부분매개)	283.152	84	.958	.947	.073
경쟁모형 (완전매개)	306.046	85	.953	.942	.077

두 모형은 서로 내재된(nested) 관계이기 때문에 보다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X^2 의 차이값을 통해 비교하였다. 하지만 X^2 검증의 특성상 표본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다른 적합도 지수인 CFI, TLI, RMSEA를 함께 비교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X^2(df=84, N=440)=283.152(p<.001)$, CFI=.958, TLI=.947, RMSEA=.073으로 나타났고, 경쟁모형의 적합도는 $X^2(df=85, N=440)=306.046(p<.001)$, CFI=.953, TLI=.942, RMSEA=.077로 나타났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자유도 1차이가 10.83 이상의 X^2 값 차이를 가져와야 한다. 이 때, 두 모형 간 X^2 차이가 유의하면, 자유도가 작은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박광배, 2000).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비교 결과, X^2 값의 차이가 22.894로 두 모형 간의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근소한 차이로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구모형에서는 자아분화와 거부민감성이 각각 연애관계 만족도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때문에 모형 적합도와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측정변인 간의 모든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난 경쟁모형(완전매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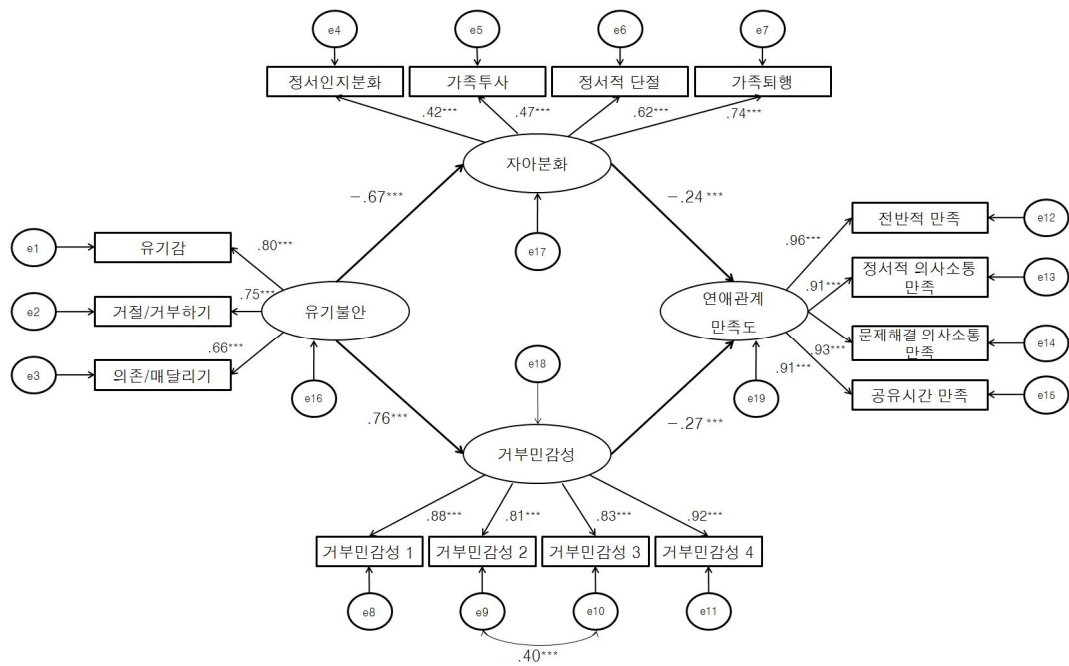
4) 최종모형 검증

모형비교를 통해 채택된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는 <표 12>와 [그림 6]에 제시하였다. <표 12>의 결과를 살펴보면 유기불안은 자아분화 ($\beta = -.67$, S.E=.04)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거부민감성 ($\beta = .76$, S.E=.09)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분화는 연애관계 만족도 ($\beta = .24$, S.E=.23)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부민감성은 연애관계 만족도 ($\beta = -.27$, S.E=.05)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불안은 자아분화와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하여 연애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 12>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C.R
유기불안	→ 자아분화	-.28	-.67	.04	-6.47***
유기불안	→ 거부민감성	1.10	.76	.09	12.34***
자아분화	→ 연애관계 만족도	.77	.24	.23	3.33***
거부민감성	→ 연애관계 만족도	-.25	-.27	.05	-4.62***

*** $p < .001$



[그림 6] 최종모형 검증

*** $p < .001$

4. 매개효과 검증

유기불안과 연애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사용하여 Z값을 산출하였다. 단순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Sobel test¹⁾ 결과는 <표 13>과 같다.

$$1) \frac{a*b}{\sqrt{a^2 S_b^2 + b^2 S_a^2}}$$

〈표 13〉 최종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Z
유기불안	→ 자아분화	→ 연애관계 만족도	-3.02***
유기불안	→ 거부민감성	→ 연애관계 만족도	-4.63***

*** $p < .001$

Sobel test를 통해 산출된 Z값이 표준정규분포의 5% 유의수준에서 -1.96보다 작거나 +1.96보다 크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본다(허준, 2013). 단순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Sobel test 결과, 유기불안과 연애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자아분화($Z = -3.02, p < .001$)와 거부민감성($Z = -4.63, p < .001$)이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기불안이 심리적 독립성이나 자율성 또는 거부에 대한 예상과 불안의 완전 매개를 통해 연애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VI. 논 의

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이성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기인 성인초기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유기불안과 연애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35세의 미혼남녀 중 1회 이상 연애경험이 있는 44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구조모형 검증과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기불안과 연애관계 만족도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특히, 유기불안의 하위요인 중 유기감은 연애관계 만족도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유기불안이 강할수록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불만족을 경험할 것으로 가정한 본 연구의 가설과, 유기도식을 강하게 가진 개인이 이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이설아, 2009)와도 일치한다. 이는 생애초기에 부모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이성 관계에서 상대방을 잘 신뢰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운 연애를 경험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강진경, 2000; 김중술, 1994; 전은경, 2010; Feeney & Noller, 1990; Pistole, 1995)를 뒷받침한다. 또한, 대상을 잃거나 버려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Campbell et al., 2005; Cassidy & Berlin, 1994)를 지지하는 것으로, 어릴 때 경험한 양육자와의 관계가 성인이 된 이후에 경험하는 다른 관계에서도 반복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다음으로 유기불안은 자아분화와 부적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부터의 제대로 분리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안정적으로 관계가 발달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황영훈, 박은영, 2003)의 결과를 지지하며, 부모에게서 충분히 안정감을 받지 못했거나, 버려지고 대상을 잃는 것에 대한 불안이 가졌을수록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자율성을 갖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기불안은 거부민감성과는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생애 초기 부모와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았을 경우 이후에 맺게 되는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를 예측하고, 보다 쉽게 거부를 당했다고 지각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김윤영, 2010; 김은지, 2016; 박현미, 2014; 박희경, 2011; 이복동, 2000; Downey & Feldman, 1996; Kennedy, 1999)과도 일치한다.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 버려지거나 상실에 대한 불안을 가진 개인은 거부단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아통합을 제외한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모두 연애관계 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아분화가 이성 관계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들(송슬기, 박경, 2013; 임선화, 2014; 최연화, 2012)과도 일치한다. 특히, 자아분화의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정서인지분화가 연애관계 만족도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개인이 정서적으로 지배받지 않고, 자주적인 신념을 가질수록 연애관계에서 만족감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거부민감성은 연애관계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연애에서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관계에 대한 만족이 낮아진다고 보고한 김중술(1994), 안상원(2014), 지은선(2014), 이인재, 양난미(2015) 등의 국내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Downey & Feldman(1996)의 연구에서는 높은 거부민감성을 지닌 여성이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의심하거나 질투

하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파트너를 비난하고 비지지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행동하여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거부민감성이 높을 경우, 연인에게 부정적인 반응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하여 상대방을 믿지 못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신뢰하여 불만족스러운 이성 관계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는 거부에 민감한 개인일수록 연애관계에서 더 많은 문제와 갈등을 경험하고,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며 관계를 유지하거나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둘째, 변인들 간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므로 유기불안, 자아분화, 거부민감성, 연애관계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유기불안이 연애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와 자아분화와 거부민감성 각각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를 포함한 것이다.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유기불안이 연애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를 삭제한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각 모형을 검증 및 비교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냈으나, 연구모형에서는 자아분화에서 연애관계 만족도로 가는 경로와 거부민감성에서 연애관계 만족도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에 완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이 자료를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한 모형으로 보고, 이를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채택된 최종모형을 분석한 결과, 측정변인 간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고 유기불안은 자아분화와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하여 연애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 자아분화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애착을 기반으로 형성된 자아분화(백경하, 2003; 양수진, 2010; 이서정, 2012; 임선화, 2015)와 거부민감성(윤희경, 윤형식, 2013; 지은선, 2014; Levy, Ayduk

& Downey, 2001)을 매개로 하여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관계에서 버려지거나 상대방을 잃는 것을 지나치게 염려할 경우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자주성을 갖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실제보다 거부 단서를 더 많이 지각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방어적인 행동을 취하여 연애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장면에서 연애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생애초기 부모와의 관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정서와 인지기능의 분화 정도나 심리적 자주성 또는 거부에 대한 지각과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상담자와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도록 돕고,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정서와 인지기능을 건강히 분리시키거나 거부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각하고 반응하도록 개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듯 연애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를 상담할 경우, 내담자가 심리적으로 독립하도록 돕고, 거부 단서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제언

본 연구는 성인초기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연애만족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실제로 상담 장면에서 성인초기의 내담자들이 이성 관계와 관련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김진희, 2005; 노현숙, 2006) 연애는 결혼에 비해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게다가 초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이 연애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때문에 이 시기의 연애에 관한 연구는 이성 관계에

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적절한 개입의 방향을 마련해주며, 이후의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다른 시기보다 이성교제가 활발하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인초기 시기에 초점을 두어 연애에 관한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상담 장면에서 이성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에게 어린 시절 경험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탐색뿐 아니라 심리적인 독립과 거부에 대한 민감성을 다뤄줄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이는 생애초기에 형성된 개인의 애착유형이 이후의 삶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마다 반복 경험 되고, 자아분화나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연애관계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내담자에게는 자신이 연애에서 경험하는 불만족감이나 어려움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됨을 깨닫게 하고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주며, 상담자에게는 시간적으로 선행하고 상대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유기불안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내담자가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자율성을 갖도록 독려하고, 거부에 대한 반응이 적절한지 평가하여 거부 단서에 대한 현실적인 지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개입하는 치료 전략의 근거를 마련해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기불안 척도는 연구 대상자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유기불안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의 관계 경험에 대해 추가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료 수집과정에서 자기보고식 질문지만을 사용하여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한 경우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유기불안, 자아분화, 거부민감성, 연애관계 만족도와 같이 자신의 내면적 특성을 드러내는 질문에 연구대상자가 방어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했을 수 있다.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반

응을 관찰할 수 있도록 질적 연구 방법이 추가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는 현재 연애중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의 교체경험을 기준으로 회고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결별의 경험이 측정 변인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는 이별 후에 과거 관계에 대해 과잉 일반화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Kelly(1981)의 연구결과를 보면 현재 교체중이지 않은 사람들이 헤어진 연인과의 관계를 더욱 불만족스럽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현재 연애중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매개연구이지만 횡단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은숙, 박정희 (2005). 자아분화와 사회불안이 남·녀 대학생의 커플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3(2), 149-169.
- 강진경 (2000). 아동기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과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소영 (2007). 이성관계에서의 심리적 욕구충족에 따른 관계만족도 : 자율성정도 와 갈등해결전략의 매개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김지영 (2002). 자기 및 타인 표상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1(4), 705-726.
- 김갑숙, 전영숙, 이철우 (2009). 청소년의 부모 애착, 자아분화,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족치료학회지, 17(1), 209-224.
- 김광은, 이위갑 (2005). 연애관계에서 성인 애착 유형 및 요인에 따른 관계 만족.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33-247.
- 김나루미 (2015).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나영, 조유진 (2009).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개념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16(3), 149-162.
- 김남진 (2005). 부부의 자아분화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및 안정성.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 (2008).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이성교제 커플들의 관계만족.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지, 22(2), 59-74.
- 김미란 (2002). 대학생 교우관계의 사례분석 -대상관계이론의 유기불안 관점에서-.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영 (2010). 여자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이성 관계만족도: 거부민감성과 외로움을 매개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2013). 남녀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이성관계만족도의 관계 : 조망수용 및

-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지 (2016). 부모애착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 심혜원 (2016). 불안정 성인애착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이성관계 갈등해결 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2), 73-100.
- 김진선 (2009). 거절 민감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자기 침묵을 매개변인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영 (2016). 유기불안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 : 고통감내력 부족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2005). 대학생의 이성교제에 관한 사이버 상담 사례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37-151.
- 김향선, 이영순 (2011).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자기격려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재활심리연구, 18(3), 375-392.
- 김혜원, 성정혜, 이상호, 배운진 (2012). 대학생의 정서적 신뢰도 및 갈등대처방식과 이성교제 만족도와의 관계. 부모교육연구, 9(2), 53-75.
- 김희경, 심혜숙, 이동훈 (2012).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정서인식 명확성과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 한국계슈탈트치료연구, 2(2), 1-21.
- 노경섭. (2014).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SPSS AMOS 21). 한빛아카데미
- 박영호 (2006). 한국적 부모-자녀관계가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부자유친성정, 애착, 우리의식, 자아분화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선, 김남희, 천성문 (2002). 대학생의 동료에 대한 애착정도와 자아분화 및 인간관계 성숙도와의 관계. 상담학연구, 3(2), 323-336.
- 박현미 (2014). 모애착과 거부민감성이 이성관계 몰입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상대방의 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경 (2011). 성인애착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원리와 실제. 도서출판 청람.
- 백경하 (2003). 원가족에서의 자아분화가 지도력 및 대인관계 적절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양희, 최외선 (1997). 환경변인 및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농촌 고등학생들의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35(6), 71-86.
- 석지은 (2008). 애착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심리도식을 매개변인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슬기 (2013). 여대생의 성인애착이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은주, 이지연 (2016). 이성관계 완벽주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7(2), 61-79.
- 안길준, 김권곤 (2008). John G. Gunderson의 경계성 인격장애의 진단적 개념과 Level System. 정신분석, 19(2), 185-191.
- 양수진 (2010).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수진, 이정윤 (2012).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4), 1921-1935.
- 연수진 (2013). 이성관계에서 안정애착이 갈등해결전략과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수진, 서수균 (2013). 이성관계에서 안정애착이 갈등해결전략과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32(2), 411-431.
- 오남경 (2015). 유기불안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남경, 이영순 (2015). 유기불안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905-929.
- 오남경, 이영순 (2015). 유기불안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교육치료연구, 7(3), 347-360.
- 유고은, 방희정 (2011).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 애착 안정성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103-122.

- 유소영 (2000). 사랑요소의 지각된 불일치와 책임귀인양식에 따른 이성관계 만족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외숙, 박경(2004).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응낙에 대한 설명 모형-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93-812.
- 윤석은, 김명주, 강민준, 박재현, 하창순 (2016). 대학신입생의 성인애착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과 자존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1), 345-367.
- 윤성민(2016). 자아분화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역할. 상담학연구, 17(1), 107-123.
- 윤정연 (2010).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성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희경, 윤행식 (2013). 성인애착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사회과학논총, 제 16집, 75-100.
- 이경성, 한덕웅 (2005).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9(1), 163-184.
-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1999). 학령기 아동의 부모 애착과 거부민감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1999(1), 144-146.
- 이명옥, 하정희 (2007). 자아분화와 결혼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2(4), 519-535.
- 이민영, 홍창의 (2000). 학생생활연구소 내담자 실태조사 보고서.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Vol.32, 35-50.
- 이복동 (2000).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민감성과 귀인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서정 (2012). 대학생의 자기분화와 대인관계,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설아 (2009). 유기도식이 이성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설아, 박기환 (2013). 유기도식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3(1), 1-17.
- 이소미, 고영건 (2009). 자아분화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643-658.
- 이수연 (2010). 대학생의 행복 척도 개발 및 구인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2), 107-122.
- 이신숙 (2000).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연구. *한국가족학회지*, 5(1), 23-43.
- 이정우, 김명자, 계선자 (1992). 결혼과 가족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지영, 손정락 (2009). 대학생의 초기 부적응도식과 정신병리적 정서간의 관계. *스트레스연구*, 17(1), 11-17.
- 이하람 (2016). 유기불안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백 (2012). 탐진치(貪嗔痴)에 대한 정신역동 상담적 접근. *교육치료연구*, 4(2), 1-19.
- 이희백 (2013). 불안감정을 핵심감정으로 가진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교육치료연구*, 5(2), 11-26.
- 임선화 (2015). 대학생의 성인애착, 이성관계만족도, 자아분화 간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종렬, 김순천 (1996). 대상분열에 의한 자기도취적 자기학대-가출 청소년의 심리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0, 199-226.
- 임종렬, 김순천 (2001). 대상중심 경계선 가족치료. *한국가족복지연구소*.
- 장은영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 자아분화,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진로 탐색행동간의 구조관계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휘숙 (2002). 애착과 사랑양식 및 관련변인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4), 93-111.
- 장휘숙 (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5(2), 101-121.

- 전춘애 (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연옥, 이민규, 김은정 (2007). 이혼 가정 자녀의 유기공포 및 상실지각과 불안 및 우울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1), 171-188.
- 정재완 (2016). 성인애착 및 자아분화와 결혼만족도의 관계: 성적·정서적 친밀감의 매개효과. 심리유형과 인간발달, 17(1), 1-21.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Bowen의 가족 체계 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제석봉 (2002). 자아분화와 부부적응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3(1), 171-184.
- 지은선 (2014). 거부민감성과 연애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책임귀인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승희 (1994). 대학생의 이성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상담 효과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연화 (2012). 대학생의 자아분화, 성인애착, 관계중독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3(2), 689-704.
- 최종선 (2015). 배우자의 자기분화에 대한 지각과 여성의 결혼만족도 관계: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영, 최연실 (2010). 성인초기 미혼남녀의 자아분화와 자기개방이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9(2), 227-244.
- 표승연 (2011). 이성관계에서 관계만족과 결별의도를 설명하는 통합인과모형의 검증 : 조절초점의 부합도 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정아 (2005).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를 매개변인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준 (2013). 허준의 쉽게 따라하는 Amos 구조방정식 모형-기초편. 서울: 한나래.
- 홍대식 (1998). 데이트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련된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2), 199-226.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1), 161-177.
- 황여주 (2013). 미혼 남녀의 정서조절과 이성관계만족도 관계에서 갈등대처방략의 매개효과와 갈등빈도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영훈, 박은영 (2003). 애착이론과 자아분화이론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1(1), 155-177.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
- Ayduk, O., Mendoza-Denton, R., Mischel, W., Downey, G., Peake, P. K., & Rodriguez, M. (2000). Regulating the interpersonal self: strategic self-regulation for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76.
- Ball, S. A., & Cecero, J. J. (2001). Addicted patients with personality disorders: Traits, schemas, and presenting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5(1), 72-83.
- Barnes, S., Brown, K. W., Krusemark, E., Campbell, W. K., & Rogge, R. D. (2007). The role of mindfulness in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responses to relationship stres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3(4), 482-500.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4, 2-90.
- Bowlby, J. (1960). Separation anxiet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1, 89-113.
- Braithwaite, S. R., Delevi, R., & Fincham, F. D. (2010). Romantic

- relationships and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Personal relationships*, 17(1), 1–12.
- Campbell, L., Simpson, J. A., Boldry, J., & Kashy, D. A. (2005). Perceptions of conflict and support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role of attachment anxie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3), 510.
- Cate, R. M., Levin, L. A., & Richmond, L. S. (2002). Premarital relationship stability: A review of recent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9(2), 261–284.
- Colarusso, C. A. (2011). 정신분석적 발달이론 [*Child and Adult Development: A Psychoanalytic Introduction for Clinicians*]. (반건호, 정선주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92에 출판).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
- Cramer, D. (2000).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conflict style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Psychology*, 134(3), 337–341.
- Dodge, K. A., & Somberg, D. R. (1987). Hostile attributional biases among aggressive boys are exacerbated under conditions of threats to the self. *Child development*, 213–224.
- Doumas, D. M., Pearson, C. L., Elgin, J. E., & McKinley, L. L. (2008). Adult Attachment as a Risk Factor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Mismatching” of Partners' Attachment Sty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3(5), 616–634.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
- Dutton, D. G., & Starzomski, A. J. (1993). Borderline personality in

- perpetrators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abuse. *Violence and Victims*, 8(4), 327–337.
- Erickson, E. H. (1959). *Identity and life circle. Psychological Issu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Erickson, M. F., Sroufe, L. A., & Egeland, B.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in a high-risk sampl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147–166.
- Erozkan, A. (2009). Rejection sensitivity levels with respect to attachment styles, gender, and parenting styles: A study with Turkish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7(1), 1–14.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281.
- Fraley, R. C., & Shaver, P. R. (2000). Adult romantic attachment: Theoretical developments, emerging controversies, and unanswered ques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2), 132.
- Girme, Y. U., Overall, N. C., Simpson, J. A., & Fletcher, G. J. (2015). “All or nothing” : Attachment avoidance and the curvilinear effects of partner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8(3), 450.
- Godbout, N., Lussier, Y., & Sabourin, S. (2006). Early abuse experiences and subsequent gender differences in couple adjustment. *Violence and Victims*, 21(6), 744–760.
- Guerrero, L. K., Farinelli, L., & McEwan, B. (2009). Attachment and relational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communic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76(4), 487–514.

- Hafen, C. A., Spilker, A., Chango, J., Marston, E. S., & Allen, J. P. (2014). To accept or reject? The impact of adolescent rejection sensitivity on early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4*(1), 55–64.
- Harper, M. S., Dickson, J. W., & Welsh, D. P. (2006). Self-silencing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3), 435–443.
- Keelan, J. P. R., Dion, K. K., & Dion, K. L. (1998). Attachment styl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Test of a self-disclosure explanation.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30*(1), 24.
- Kennedy, J. H. (1999). Romantic attachment style and ego identity, attributional style, and family of origin in first-year college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33*(2), 171–171.
- Kivlighan Jr, D. M., Patton, M. J., & Foote, D. (1998). Moderating effects of client attachment on the counselor experience-working alliance relationshi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3) , 274.
- Kosek, R. B. (1998). *Self-differentiation withi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 Lee, A., & Hankin, B. L. (2009). Insecure attachment,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predicting prospective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8*(2), 219–231.
- Lloyd, S. A., & Cate, R. M. (1985). The developmental course of conflict in dissolution of pre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755–773.
- Masterson, J. F. (1972). Treatment of the adolescent with borderline syndrome.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35*(1), 5.

- Murray, B.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Jason Aronson, New York.
- N.Gregory Hamilton. (2007)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 자기와 타자[*Self and others: Object relations theory in practice*]. (김진숙 외 공역). 학지사 (원전은 1999에 출판).
- Ozen, A., Sumer, N., & Demir, M. (2010). Predicting friendship quality with rejection sensitivity and attachment securit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8(2), 163–181.
- Pistole, M. C. (1989). Attachment in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Style of conflict resolu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6(4), 505–510.
- Pistole, M. C. (1995). College students' ended love relationships: Attachment style and emo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 Shaver, P. R., & Brennan, K. A. (1992). Attachment styles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Their connections with each other and with romantic relationship outcom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5), 536–545.
- Stevens, G., & Gardner, S. (1994). *Separation anxiety and the dread of abandonment in adult males*. Praeger Publishers/Greenwood Publishing Group.
- Waters, E., Hamilton, C. E., & Weinfield, N. S. (2000). The stability of attachment security from infancy to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General introduction. *Child development*, 71(3), 678–683.
- Watson, J., & Nesdale, D. (2012). Rejection sensitivity, social withdrawal, and loneliness in young adul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2(8), 1984–2005.
- Wilie, M. S. (1991). Family therapy's neglected prophet: A profile of

Murray Bowen. *The evolving therapist*, 221–229.

Zayas, V., Mischel, W., Shoda, Y., & Aber, J. L. (2011). Roots of adult attachment maternal caregiving at 18 months predicts adult peer and partner attachment.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2(3), 289–297.

Zimmer-Gembeck, M. J., Trevaskis, S., Nesdale, D., & Downey, G. A. (2014). Relational victimization, lonelin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direct associations via self and peer report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3(4), 568–582.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Abandonment Anxiety and Satisfaction of Romantic Relationship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Cho, Eun Eai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on the relationship abandonment anxiety and satisfaction of romantic relationship. The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unmarried 440 (186 males and 254 females between the ages of 19 and 35 years who have been in romantic relationship).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using tools as follows : The Scale of Satisfaction with Romantic Relationship (slightly modified version of K-MSI Korean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Abandonment Anxiety Scale, Self-Differentiation Scale and 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were used. SPSS 20.0 and AMOS 18.0 were used to analyze data.

The major research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Correlational analyses revealed that there are correlations among satisfaction of romantic relationship, abandonment anxiety, self-differentiat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Second, Self-differentiat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bandonment anxiety and satisfaction of romantic relationship. The results indicated that early relationship experience relate to psychological independence and rejection. As a result, they affect the satisfaction of romantic relationship.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Abandonment anxiety, Self-Differentiation, Rejection Sensitivity

부 록

부록 1. 설문지 표지 및 동의서

부록 2. 기초 정보 설문지

부록 3. 연애관계 만족도 척도

부록 4. 유기불안 척도

부록 5. 자아분화 척도

부록 6. 거부민감성 척도

부록 1. 설문지 표지 및 동의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설문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설문지는 성인초기 미혼남녀의 연애관계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성인초기(20~35세)에 해당하며, 현재 혹은 과거에 연애경험이 있는 분들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지의 설문 작성 소요시간은 15분 내외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연구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질문내용을 잘 읽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귀중한 연구 자료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설문에 응답해주신 분들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답례품이 증정될 예정입니다. 작성하신 연락처는 오직 사은품 발송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연락처 공개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생략하셔도 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컴퓨터로 처리되어 오직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만약 연구조사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원할 경우 아래 연구담당자 이메일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답이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여에 동의하시면 아래 서명란에 서명을 해주시고, 설문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2016년 9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상담심리 전공

연구자 : 조은애(lifemustgoon@naver.com)

지도교수 : 이 정 윤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위의 내용에 대해 전달받고 숙지하였으며
응답한 내용들이 연구자에 의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서명 :

연락처 :

날짜 : 2016 년

월

일

부록 2. 기초 정보 설문지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과 연애행험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 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인 내용과 연애에서의 일반적인 경험을 통계학적으로 알아보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익명으로 처리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기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나이: 만 ()세

3. 현재 직업

① 대학생 ② 대학원생 ③ 취업 준비생 ④ 직장인 ⑤ 무직 및 기타

4. 연애행험 유무: ① 있다 ② 없다

5. 현재 연애를 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현재 파트너를 제외한 이성교제 횟수: ① 없음 ② () 회

7. 현재(과거) 교제중인 파트너와의 교제 기간: ()년 ()개월

*현재 연애중이지 않은 경우, 바로 전 연애의 총 기간을 의미함

8. 현재(과거) 교제중인 파트너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만나십니까?

평균 () 회

부록 3. 연애관계 만족도 척도

※ 다음의 문항들은 현재 본인과 본인의 이성친구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남자(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성 친구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에 헤어진 이성 친구를 기준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의 이성교제 관계가 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파트너는 그때그때 내 기분을 대부분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는 같이 이야기를 할 주제가 많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4	때때로 나는 파트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해 친구에게 대신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는 우리의 차이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파트너는 때때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는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파트너는 때때로 나를 속상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는 다른 연인들처럼 잘 지내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 파트너에게는 내가 싫어하는 점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때때로 나는 파트너를 몹시 떠나고 싶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 파트너는 내 기분을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는 다룰 때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4	견해 차이가 있을 때 내 파트너는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파트너와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꽤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 파트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서 내가 말조차 꺼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 이성교제관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실망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관계에서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 파트너는 종종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가 슬퍼할 때 마다 내 파트너는 나에게 사랑과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단 한순간도 우리 만남을 후회한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 파트너는 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3	우리 관계의 미래는 너무 불확실해서 중요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4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이 매우 많다.	①	②	③	④	⑤
25	내 이성교제관계는 내가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에도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7	내 파트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내 파트너에게 항상 사랑과 애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29	우리는 지금보다 예전에 함께 했던 시간들이 더 즐거웠던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0	내 파트너는 내가 바라던 모든 자질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	우리는 매우 자주 말다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내 파트너는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내 파트너와의 사소한 의견차이가 종종 큰 다툼으로 발전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만일 우리가 사귀지 않았다면 더 행복하게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5	내 파트너는 때때로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때때로 우리 만남에 대해서 꽤 낙심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37	우리는 취미와 여가생활에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8	때때로 나는 파트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①	②	③	④	⑤
39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연인들보다 더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40	내 파트너는 때때로 내 성격의 어떤 면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처럼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41	내 파트너는 나와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4. 유기불안 척도

※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평소 자신의 모습보다도 더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경험합니다. 다음의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등을 생각하며 해당하는 곳에 표시(●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만의 공간(영역)에 들어오려는 사람과 멀어지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누군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4	종종 주위사람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 걱정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원만한 관계를 위해 되도록 내 주장을 하기보다 상대방의 주장을 더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누군가 눈치를 주는 것 같으면 그 순간 어린아이처럼 작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7	애인(또는 친한 친구)이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누군가를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0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한 척 할 수 있으나 혼자 남게 되면 처량하고 외로워진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까봐 두려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당한 상황에서 화가 나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나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4	사람들과 표면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사람들과 있을 때 소외감과 불안감을 자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6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상대방이 나에게서 멀어질까봐 괜히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7	누군가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친해지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8	자신 있게 자기주장을 해야 할 상황이라 할 지라도 주장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9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 혼자 남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가 정작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의지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1	사람들에게 피해주기 싫어서 그들의 뜻에 맞추어 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때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끌려 다닌다는 기분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4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결국 나는 상처받고 버림받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7	내가 느끼기에 사람들은 나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5. 자아분화 척도

※ 다음 문항들은 귀하의 전반적인 행동, 경험 및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하는 일이 많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말부터 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 말을 후회하는 일이 많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비교적 내 감정을 잘 통제해 나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욕을 하고 무엇이든 부수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에 잘 말려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남이 지적할 때 보다 내가 틀렸다고 여길 때 의견을 더 잘 바꾼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의견을 더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10	논쟁이 일더라도 필요할 때는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내 말이나 의견이 남의 비판을 받으면 바로 바꾼다.	①	②	③	④
12	내 계획이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잘 바꾼다.	①	②	③	④
13	주위의 말을 참작은 해도 어디까지나 내 소신에 따라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 다음 문항들은 아동기, 청소년기 및 현재에 이르기까지 귀하의 전반적인 행동, 경험 및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자라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대해 근심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①	②	③	④
15	부모님은 내가 미덥지 못해서 지나치게 당부하는 일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16	우리 부모님은 형제들 중 유독 나 때문에 속을 많이 태웠다.	①	②	③	④
17	부모님은 내 문제만 없으면 아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을 많이 하셨다.	①	②	③	④
18	내가 처한 상황은 부모님이 전부터 입버릇 처럼 말해오던 그대로이다.	①	②	③	④
19	내 걱정이나 근심은 옛날 부모님이 말씀하시던 그대로이다.	①	②	③	④
20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 대단히 불편할 거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1	가정을 떠나는 것이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①	②	③	④
22	나는 부모님 슬하에서 하루 빨리 독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23	부모님과 자주 다투기 보다는 안 보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4	나는 자라면서 집을 나가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껴왔다.	①	②	③	④
25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과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26	내가 자랄 때 우리 가족은 자기 본분을 다했다.	①	②	③	④

27	우리 가족은 심각한 일이 있어도 가족 간에 금이 잘 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8	가족 간에 말썽이 있어도 서로 상의해 가면 서 잘 해결해 왔다.	①	②	③	④
29	우리 가정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다짐을 하는 일은 드물었다.	①	②	③	④
30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부모님은 차분하게 잘 처리하셨다.	①	②	③	④
31	우리 가정은 대체적으로 화목하고 단란했던 편이다.	①	②	③	④
32	우리 가족은 각자 의견이 달라도 서로 존중해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33	나는 어릴 때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34	우리 가족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도 잘 싸웠다.	①	②	③	④
35	부모님은 나를 낳았을 뿐, 교육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36	우리 가족들은 서로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부록 6. 거부민감성 척도

※ 다음 문항들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가를 알아보는 질문들입니다. 상황을 읽고 두 가지 질문에 대해 (a)와 (b)에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①) ~ 매우 그렇다(⑥) 중 자신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의 느낌과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고 제시된 상황에 처해 본 경험이 없다면 만일 그러한 상황에 처할 경우를 상상하면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문항의 위(a)와 아래(b)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상황 1.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에게 강의 노트를 빌려달라고 한다.			
(a) 강의 노트를 빌려주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강의 노트를 빌려 줄 것이라 예상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상황 2. 친구에게 이사 와서 나와 함께 살자고 부탁한다.			
(a) 이사 오기를 거절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이사 오라는 부탁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상황 3. 부모님에게 어떤 공부를 더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a) 부모님이 결정을 도와주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부모님이 결정을 도와주실 것이라 예상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상황 4. 잘 모르는 사람에게 데이트를 신청한다.						
(a)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상황 5. 당신의 남자(여자)친구는 오늘 밤에 다른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데 당신은 오늘 당신의 남자(여자)친구와 함께 있고 싶을 때, 그에게 자신과 함께 있어 달라고 요구한다.						
(a) 남자(여자)친구가 당신과 함께 있어주지 않을 거라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남자(여자)친구가 당신과 함께 있어줄 것이라 예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상황 6. 부모님에게 용돈을 더 달라고 부탁한다.						
(a) 부모님이 용돈을 더 주지 않을 거라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부모님이 용돈을 더 주시리라 예상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상황 7.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에게 수업 중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좀 더 설명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a) 교수님이 설명을 더 해주실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교수님이 설명을 더 해주시리라 예상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상황 8. 친한 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난 후에,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다.						
(a)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 주저되거나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가가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상황 9.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에게 같이 커피를 마시자고 제의한다.						
(a) 그 사람이 그러자고 할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그 사람이 같이 커피를 마실 것이라 예상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상황 10. 졸업 후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때 부모님께 당분간 생활비를 보조해 달라고 요구한다.						
(a) 생활비 보조를 거절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생활비를 보조해 주시리라 예상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상황 11. 방학 기간 동안, 친구에게 나와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다.						
(a) 친구가 여행 제의를 거절하지는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친구가 여행 제의를 받아들여리라 예상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상황 12. 남자(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난 후, 먼저 전화해서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a) 그 친구가 만남을 거절할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그 친구가 만나자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상황 13. 친구에게 어떤 물건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다.						
(a) 친구가 물건을 빌려줄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친구가 물건을 빌려줄 것이라 예상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상황 14. 부모님께 내가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한다.						
(a) 부모님이 그 부탁을 들어줄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부모님이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 예상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상황 15. 친구에게 어려운 부탁을 한다.						
(a) 친구가 그 부탁을 들어줄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친구가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 예상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상황 16. 남자(여자)친구에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물어본다.						
(a) 남자(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할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남자(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것이라 예상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상황 17. 클럽에서 눈에 띄는 이성(동성)에게 다가가서 춤을 추자고 청한다.						
(a) 내 청을 거절할 것 같아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내 청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상황 18. 남자(여자)친구에게 부모님을 만나러 와 달라고 요청한다.						
(a) 내 청을 거절할 것 같아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내 청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